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분석과 그 특징 연구



안 병 삼

제1저자 삼육대학교
(bayusansan@syu.ac.kr)



김 수 진

교신저자 삼육대학교
(ksj818@syu.ac.kr)

국문요약

본 논문은 일본 조선학교 교가를 대상으로 음악적 요소 등을 분석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분석은 음악의 3대 요소를 기준으로 리듬(Rhythm), 선율(Melody), 화성(Harmony)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리듬은 박자·리듬 꼴·갓춘마디와 못갓춘마디(센내기·여린내기)의 여부·시작 리듬 등 4가지로, 선율은 음계·음역·전주사용 여부 등 3가지로, 화성은 조성·성부 조직·종지 등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특징은 첫째, 교가에 전반적으로 부점리듬이나 당김음 등을 사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가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둘째, 악보의 오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자주 나타난 악보 오류는 음표의 종류를 박자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와 가사에 ‘.’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셋째, 숨표나 쉼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넷째, 일본 조선학교 교가들은 장조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빠르기말 대신 부사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교가의 전체적인 느낌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 일본, 조선학교, 교가, 재일동포, 음악, 특징, 리듬, 선율, 화성

I. 들어가는 말

한민족들은 예로부터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은 여러 원인으로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민족은 1903년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 이민을 시작으로 현재 해외로 이주한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2019년 현재 75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¹⁾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가 1955년 이후부터는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들을²⁾ 외국인 등록자 통계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외국인 등록상의 재일 조선인은 60만 명 전후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³⁾ 이러한 해외 한민족들은 대체로 현지국가에서 처음에는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점차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첫 이민을 떠났던 미국의 한민족이 그러했고, 유럽의 광부나 간호사 등의 한민족도 그러하였다. 심지어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의 한민족인 조선족들도 현재는 과거와 비교하면 경제적으로나 사

1) 재외동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재외 동포는 193개국에 7,493,587명이다. 가장 많은 곳은 미국으로 2,546,982명이고, 두 번째가 중국으로 2,461,386명이다. 세 번째가 일본으로 824,977명이다. 일본의 경우, 영주권자가 361,351명, 일반 체류자가 71,058명, 유학생이 17,050명, 외국국적(시민권자)이 375,518명이다. 출처: http://www.korean.net/portal/info/pg_knt_major_area.do (검색일: 2019. 11. 21.).

2) ‘재일동포’는 재일한국인·재일조선인·재일한국·조선인·재일 코리안·재일 한인 등 여러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줄여서 자이니치(在日)라고도 부른다. 본문에서는 재일동포를 사용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재일교포’와 ‘재일조선인’도 사용할 것이다.

3) “여기서 외국인 등록상의 국적(출신지) 관련 표기에 대한 이해를 간략히 구하자면, 재일동포들이 의무적으로 상시 휴대해야 하는 외국인 등록증의 국적란에는 ‘한국’ 혹은 ‘조선’ 둘 중의 하나가 반드시 표기된다. ‘한국’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가 한국 국적자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선’이라 표기된 외국인들은 북한의 국적을 가진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여기에서 조선이란 북한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조선)라고 하는 원래의 출신지를 의미한다. 북한과 국교가 없는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외국인등록증상에 ‘조선’이라는 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은 크게 두 부류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조선을 북한과 동일시해 북한을 지지하는 이들과 ‘조선을 단지 문화적 출신 배경으로만 해석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특별영주자)이다. 이처럼 외국인 등록상의 ‘조선’이라는 표기는 일본 정부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재일조선인들의 외국인 등록을 자의적으로 해석/관리하기 위한 ‘편의상의 기호’에 불과하다(高英穀 2002, 38-39).”

회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일본의 한민족들은 중국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나라 잃은 설움을 당했던 과거가 있지만, 점차 나아지는 삶 보다는 더욱 일본 정부의 차별과 사회적 냉대로 21세기인 현재까지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민족학교인 조선학교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과 사회적 불이익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듯하다. 중국 조선족 학교는 일본이 패망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후, 모든 학교가 한족 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에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으로 한족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 조선학교의 경우 일본이 패망한 1945년 이래로 끊임없는 일본 정부의 탄압과 차별로 지금까지도 계속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많은 재일동포가 거리로 나와 일본 정부와 싸우고 있다. 최근 재일동포들이 거리로 나와 일본 정부에 항의하게 된 이유는 일본 정부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와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조선총련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행해진 조치로, 재일동포들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⁵⁾ 더 심각한 것은 일본 법원도 조선학교 학부모들이 제기한 지원금 지급 소송에서 학교와 조총련의 과거 관계를 언급한 신문기사를 인용하며 지원금이 조총련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7년 패소 판결 이후 계속해서 패소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⁶⁾

4) 조선학교는 조선인학교, 민족학교, 그리고 ‘우리학교’ 등으로 불린다. 어떤 용어든 그 나름의 정치성을 함의하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선학교로 칭하고, 인용인 경우에는 인용문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5)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 엔(한국 돈 약 134만6천~269만3천 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들이 운영하는 조선학교를 이 제도 대상에 넣을지 고민하였고, 새롭게 총리가 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하자 조선학교는 친(親)북한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현재 조선학교만이 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 다른 중국계 화교학교, 브라질학교, 국제학교 등 40여 개의 일본 내 외국인학교는 동일하게 이 제도를 적용받아 취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6) 2019년 10월 3일, 나고야(名古屋)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아이치(愛知)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10명이 자신들을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550만 엔(약 6천17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나고야지방법원은 2018년 4월 1심 판결에서 “조선총련의 개입에 따라 학교 운영이 자율적이지 않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졸업생들은 항소했다.

이렇게 일본 한민족들은 일본에서의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후세교육은 포기하지 않고 조선학교를 곳곳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현재 얼마남지 않은 일본 조선학교는 일본에서 우리의 해방과 더불어 민족교육을 실시하였지만 국내에서는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사실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 조선학교 교가는 물론 조선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문화’의 자료 발굴과 그 연구는 꼭 필요한 연구라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 조선학교는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던 1세대 재일동포들이기 우리말을 못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이 우리글·우리말을 잊지 않게 하려고 만든 국어강습소의 전신이다.

본 논문은 일본 조선학교 교가를 대상으로 음악적 요소 등을 분석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교가란 학교를 상징하는 노래로서, 한민족의 사회적·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족학교의 교육 정신이나 목표, 그리고 특성 등이 담겨있는 것이다. 흔히 교가는 학생들에게 애교심을 길러주고, 동시에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학교가 특별히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는 노래로 정의된다(안병삼 2011, 370). 이 때문에 교가는 가사 속 내용뿐만 아니라 운율에서도 학교의 이념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가 가사를 통해 학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학교 정신과 학습 목표를 드러내놓고 있으며, 음악적 요소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강한 리듬과 반복적 사용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교가를 통한 교육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강력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일본의 한민족에게 민족정체성 유지는 물론 그들만의 민족 문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2019년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 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 엔(약 7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http://bit.ly/38WgMs8> (검색일: 2019. 11. 23.).

- 7) 독립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들과 그 자손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재일동포 혹은 재일교포라고 한다. 일본 내에서는 줄여서 재일(자이니치)이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 한국인과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두 부류가 있다. 재일동포 단체는 크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약칭 민단, 울드커머 한국계 단체, 한국 정부와 협력관계이지만 한국 정부에서 독립된 단체이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약칭 조총련, 울드커머 북한계 단체, 북한 정부 산하에 있다)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본 조선학교는 일반적으로 조총련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도 있고 북한 국적의 학생도 있다.

비록 그동안 한국 및 해외에서 일본의 조선학교에 대한 학술 연구나 NGO 활동은 꾸준히 진행됐지만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일본의 조선학교 교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사실, 국내·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을 포함한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교 교가에 관한 연구는 국내 학교 교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⁸⁾ 해외 한민족 교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 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중국 조선족 학교 교가 연구이고, 일본 조선학교나 구소련지역의 고려인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공백 상태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연구성과는 안병삼(2011, 2012, 2013, 2014)의 조선족 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이다. 그는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 학교 대부분을 수년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학생과 선생님을 만나 조선족 학교의 현황을 듣는 동시에 교가를 포함한 다른 '학교문화'와 관련한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임영언·김태영(2017)의 「재일코리안 민족학교의 성장요인과 학교문화로서 교가 고찰」과 안병삼·임영언(2018)의 논문 「해외 한민족학교의 교가 비교 연구 - 중국 조선족학교와 일본 조선학교를 중심으로-」이 있다. 일본에서의 조선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는 김리화(2015)의 「故郷としての朝鮮学校-朝鮮学校の音楽教育に関する一考察」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 교가에 대한 일반적 내용이거나 교가 가사에 집중되어 있고 교가에 나타난 음악적 요소에 관한 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해외 한민족학교의 음악적 내용이나 그 특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러는 사이 전 세계의 한민족학교는 집거지의 붕괴와 학생 수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폐교되는 학교가 급증하였고 수많은 교가도 함께 사라져갔다.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일본 조선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해방 이후 한때 일본 전역에 600여 개의 조선학교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60여 개의 학교만이 어렵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한민족들이 한반도를 떠나 타향에서 살면서 추구하였던 민족교육 이념과 민족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교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개척분야이고 향후 다양한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연구 분야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반도를 벗어나 우리 민족 문화를

8) 국내 학교들의 교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다수 존재한다. 그 예로 송윤희의 논문을 참고할 만 하다(송윤희 2014, 1-16).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문화 영토와 학문 영역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안병삼 외 2018, 153-175). 동시에 그동안 민족학교의 음악적 요소 분석 연구는 민족학교 교가 연구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연구의 출발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일본 조선학교에서 수집한 교가 50개 중 악보가 있는 교가 14개이다.⁹⁾

II. 일본 조선학교의 개황

재일동포의 시작은 대한제국 때 일본으로 유학한 학생들이다. 1923년에 일본 열도에 있던 조선인의 수는 8만 명으로 추정하지만 1945년 패전 직전에는 200만에 이른다. 해방 후 일본에 체류하던 조선인의 대부분은 한반도로 돌아갔지만, 불안한 한반도의 정치 상황과 경제 혼란으로 일본에 남은 숫자도 많았다. 이들은 한반도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했기에, 노동력이 필요했던 과거의 공장과 지역으로 돌아갔다. 오사카에 재일동포가 많은 이유는 군수공장이 밀집하여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조선인이 일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일동포 1세대는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45년 8월, 식민지 지배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맞이한 재일동포들은 어린아이들이 일본학교에 다니고 있어 우리말을 못 하는 것을 보고 우리글·우리말을 잊지 않게 하도록 전국에 국어강습소 교육을 시작하였다. 국어강습소 또는 한글학원 등으로 불린 초기 민족교육의 장은 1946년 초에는 600~700개교를 웃돌았다고 한다. 당시 광범위한 재일동포들이 소속한 민족단체였던 재일본조선인련맹은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생겨난 국어강습소를 통합하고 정비해 학교로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배지원 외 2017, 23). 이러한 조선학교들은 부지를 빌려 사용하고, 교재도 자체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낙후된 모습으로 출발하였지만, 자녀들을 민족의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당당한 조선 사람으로 교육했다. 당시 체계적이지 못했던 조선학교는 1947년 10월 학교체제로 전환되면서 소학교 541개교에 학생 56,961명, 교사 10,250명, 중학교 7개교에 학생 2,761명, 교사 95명, 청년학교 22개교에 학생 1,765명, 교사 101명, 고등학교 8개교에 학생 358명, 교사 59명이 재적하고 있었다(藤島宇

9)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일본 조선학교 교가는 과거 저자와 함께 교가 연구 작업을 한 연구자가 2010년대에 일본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그는 수차례 일본 조선학교의 방문과 지인을 통하여 일본 조선학교 교가 50여개를 수집하였고 그 중 악보가 있는 것이 14개였다. 본문에서 사용한 교가 악보들은 학교에서 발행한 책자 및 낱장자료 등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内 외 1966, 46-47).

1946년 초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유보한 채 1947년 4월 문부성은 지방 교육행정에 대해 통달을 발신하여 조선인이 세운 교육시설을 인가해도 좋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48년 문부성의 태도는 갑자기 변하여 재일동포들은 일본의 의무교육 학교에 취학해야 하며, 설립인가를 받은 조선학교라도 정규과목으로서의 조선어 수업은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재일동포들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오사카에서는 경관의 발포로 조선인 소년 한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한신교육투쟁(4.24교육투쟁)이다. 이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조선인 교육대책위원회와 문부성의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합의문도 발표하였지만, 1949년 9월 일본 정부는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을 강제 해산시켰고, 10월 13일 문부성은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라는 통달을 통하여 10월 19일에는 90개 학교에 폐쇄를 통고하는 등 일련의 폐쇄조치를 통해 1949년 시점에 전국의 약 360여 개 조선학교가 일제히 폐쇄되었다.

이후 재일동포들의 국적 문제까지 야기되면서 조선학교는 무인가학교인 자주학교, 공립학교, 민족학급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어 그 명맥을 이어갔다. 1952년, 학교를 폐쇄하지 않고 조선인학교의 모양새를 유지한 자주학교 형태는 효고(兵庫), 아이치(愛知), 히로시마(廣島) 등 44개교가 존재하였다. 조선인학교가 일본 공립학교 또는 그 분교로써 인가된 공립학교 형태는 도립 조선인학교 14개교, 기타 공립분교는 19개교가 운영되었다. 일본인 학교 안에 정식으로 조선인 학급이 설치되어 운영된 것은 전국에 77개 학급이었고, 과외 시간만 민족학급이 따로 구성된 경우는 이바라키(茨城) 11개 학급, 교토(京都) 8개 학급 등 이었다(배지원 외 2017, 94).

그러나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의 혼란이 시작되면서, 일본 내 재일교포 사회에서도 이념 대립이 발생해 남한을 지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라서기 시작하였다. 1951년 1월 조련의 후계 단체로서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이 결성되어 파괴되었던 조선학교 교육체계도 차츰 재정비되어 갔다. 1955년 5월 민전은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이하 총련) 결성을 선언하였다. 1957년에는 북한의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 송금이 시작되어 조선학교의 운영이 훨씬 원활해지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¹⁰⁾ 한편 1958년 중반부터는 재일동포들의 북한 귀국운동이 고조되어나갔

10) 재일조선인은 조국의 지원에 힘입어 민족교육 발전에 한층 힘을 쏟게 된다. 이 송금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버팀목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경제적 의미 이상으로, 당시 재일조선인들이 품게 되었다는 ‘우리에게도 조국이 있다!’라는 뜨거운 감정이 대변하듯 정신적 버팀목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배지원 외 2017, 184).

고,¹¹⁾ 이 ‘북송운동’을 계기로 조선학교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재일동포들이 귀국준비를 위해 조선학교에서 조선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학교의 증가 추이는 북송운동이 끝난 시점인 1970년대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의 문부성은 조선인만을 수용하는 공립학교의 계속된 운영을 부정하고, 한편으로 조선학교에 대해 각종 학교인가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에서 제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학교제도를 신설해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매우 강압적인 조선학교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968년 4월 도쿄도의 미노배(美濃部) 도지사의 혁신 도정이 조선학교 체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조선대학교를 인가하였는데, 이것이 전국 각지에서의 인가 취득에 큰 영향을 주어 1975년까지 모든 조선학교가 각종 학교 인가를 취득하게 되었다.¹²⁾ 즉 인가를 받은 학교는 1965년에 11개교, 1966년 39개교, 1967년 29개교, 1968년 8개교, 1969년에는 4개교, 1970년에는 10개교에 달하였다. 결국, 일본 정부가 조선인학교에 집중 공격을 한 5년 사이인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에 101개교가 인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1971년 159개의 조선학교 중 3분의 2에 해당한다. 그 이전 10년간(1955년~1964년)에 인가를 받은 학교 수가 총 45개교였음을 고려하면 얼마나 급격히 증가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1971년에도 12개 학교는 미인가학교로 남아있었다(오자와 유사쿠 1999, 446-447).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는 60여 개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조선학교가 민족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의 학생을 받고는 있지만, 북한 국적 동포 위주로 구성된 조선학교가 일본 내 겨우 3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로 규모가 축소된 상태에서 아직도 60개가 넘는 조선학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¹³⁾

11) 일본 정부는 패전 초기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재일교포와 그에 따른 물자 부족, 치안악화, 잦은 민족단체들의 충돌에 따른 테러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 협의하여 자국에 있는 다수의 북한 출신이나 좌익인 재일동포들을 일본 적십자회의 이름으로 배에 태워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실시한다. 일본 적십자회는 무려 1980년대까지 재일동포의 북송을 추진했다. 북한행 배에 탑승했던 인원은 9만 명의 재일동포와 1,800여 명의 일본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일동포, 특히 조총련계의 반수 이상이 일본에서 떨어져 나갔다. 일본 내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세력은 약화되었다.

12) 미노베 도지사는 문부성의 지시를 거스르고 조선대학교를 대학교육을 하는 곳으로 인정하였다. 교육문제로서 조선학교에 대처하는 자세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이후 조선학교를 학교로써 인정하고 처우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는다(오자와 유사쿠 1999, 466).

13) 일본 정부는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 중 한국적과 조선적을 한국·조선적으로 통합하여 통계를 내다가, 2015년 12월부터 분리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적으로의 이동률을

Ⅲ. 음악적 분석 : 음악의 3대 요소 분석

교가는 학창시절동안 꾸준히 부르면서 경험하게 될 음악교육 중 하나로, 작사자는 교가의 가사에 그 시대의 상황이나 관습, 학교의 추구하는 교육목표나 정신, 학교가 속한 지역의 명칭이나 정서 등을 표현하게 되며, 작곡자는 이러한 가사에 적합한 음을 만든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는 특히 그 시대의 억압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서양음악에서 기본으로 정의하는 음악의 3대요소와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음악의 3대 요소는 리듬(Rhythm), 선율(Melody), 화성(Harmony)이다. 이들은 음악을 이루는 3대 요소임과 동시에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적 구조를 이룬다. 이것을 큰 틀로 잡아 다시 세부적으로 리듬은 박자·리듬꼴·갓춘마디와 못갓춘마디(센내기·여린내기)의 여부·시작 리듬 등 4가지로, 선율은 음계·음역·전주사용 여부 등 3가지로, 화성은 조성·성부 조직·종지 등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리듬 분석

‘리듬’은 음악의 시간적 요소로 시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밀하게 계산된 ‘구체적인’ 특성을 보이며, 그 구체적인 특성이란 길이가 짝 수 있다는 객관성을 의미한다(김유희 2010, 26). 다양한 음표의 길고 짧은 길이들을 시간상으로 배열함으로 리듬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리듬은 곡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본문에서는 ‘리듬’을 다시 세부적으로 ‘박자’, ‘리듬꼴’, ‘갓춘마디·못갓춘마디’, ‘시작 리듬’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서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리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박자

리듬을 나타내는 최소의 기본 단위를 ‘박’이라고 하며, 일정한 박이 모여 셈여림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박자’라고 한다. 2박자는 강·약, 3박자는 강·약·약, 4박자는 강·약·중강·약, 6박자는 강·약·약·중강·약·약과 같이 진행된다. 2/4박자는 J (4분음표)가 한 마디에 2개씩 강·약의 규칙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3/4박자는 J (4분음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15년 12월 현재 재일동포 전체 수는 한국 국적이 45만 7,772명, 조선적이 3만 3,939명이다. 이를 통해 조선적 학령아동 수가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정진성 2017, 235).

한 마디에 3개씩 강·약·약의 규칙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본문의 연구대상인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 중 4/4박자를 사용한 학교는 13개 학교로 92.9%를 차지하였고, 6/8박자를 사용한 학교는 1개 학교로 7.1%를 차지하였다. 4/4박자를 사용한 13개 학교의 교가는 ♩ (4분음표)가 한 마디에 4개씩 강·약·중강·약의 규칙으로 되어있었다. 이는 4/4박자가 안정된 박자로 제창하기에 무난하고 4박자의 셈여림 규칙이 씩씩한 느낌을 주게 되어 학교의 교육이념과 이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박자로 인식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체로 부르는 행진곡, 응원가의 성격을 갖는 교가의 특성에 맞는 박자라고 하겠다. 단 1개의 조선학교(홋카이도 초중고)에서만 ♪ (8분음표)가 한 마디에 6개씩 강·약·약·중강·약·약의 규칙이 되는 6/8박자를 사용하였다. 6/8박자는 다시 빠른 6/8박자와 느린 6/8박자로 구분되는데, 빠른 6/8박자는 ♩ (점 4분음표)를 한 박으로 잡아 2박자처럼 빠르게 노래하고 느린 6/8박자는 ♪ (8분음표)를 한 박으로 잡아 느리게 6박으로 노래하는 것이다. 홋카이도(北海道)¹⁴⁾초중고 교가는 느린 6/8박자를 사용하여 서정적인 느낌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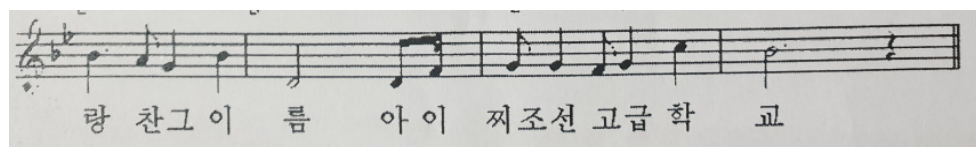
2) 리듬꼴

리듬꼴은 다양한 음표의 배열에 따라 형성되고 그 성격 또한 결정된다. 민음표(., ♩, ♪, ♫)를 주요 골격으로 하여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점음표(., ♩, ♪, ♫) 특히 ♪ ♪의 부점리듬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리듬꼴에는 당김음, 셋잇단음표, 짧은 16분음표의 연속사용 등이 있다. 민음표가 주요 골격으로 사용된 교가는 3개인데, 홋카이도 초중고 교가는 6/8박자로 ♪ (8분음표)를 주로 사용하였고, 나고야(名古屋)조선초급학교 교가는 4/4박자로 역시 ♪ (8분음표)와 ♩ (4분음표)의 민음표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 두 학교의 교가는 서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세이방(西播)조선초·중급학교 교가는 민음표인 ♩ (4분음표)를 주로 사용함과 동시에 부점리듬(8회)과 당김음의 사용으로 씩씩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점음표가 주요 골격으로 사용된 교가는 11개로,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리듬꼴은 부점리듬이며 ♪ ♪ 형태나 ♩ ♪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여기서 최소 16~17회 부점리듬을 사용한 교가는 4개, 21~27회 사용한 교가는 5개, 32~33회 사용한 교가는 2개로 분류된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에서 부점리듬을 많이 사용한 이유는 가사에 수령님, 통일조선, 붉은 피 등의 사회주의적 단어 사용이 많고 이러한 강한 단어에

14) 본 논문에서는 일본 조선학교 한글 명칭은 학교에서 사용한 표기법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한자표기를 함께 하여 정확한 지명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어울리는 리듬이 부점리듬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점리듬의 사용이 힘찬 기상과 의지, 애교의 마음 다짐 등을 표현하기에 쉬우며, 행진곡의 씩씩한 느낌을 줄 수 있어 교가에 적합하기도 하다. 그밖에도 음악적으로 가장 따라 부르기 쉬운 박자의 형태가 4/4박자라는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있는 일본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이유가 된다. 다양한 리듬꼴에는 당김음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당김음을 사용한 일본 조선학교의 교가는 총 14개 중 4개가 있었다. 당김음이란 강박과 약박의 위치가 바뀌면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던 강·약의 패턴이 바뀌는 리듬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당김음의 사용은 돌발적인 역행을 일으켜 악곡에 활력을 불어넣어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 예로, 아이찌(愛知)조선중고급학교 교가는 마지막 소절 ‘아이찌조선고급학교’ 가사에서 당김음 리듬꼴을 사용하여 교명을 강조하였다. 그 중 ♩ (4분음표) 하나의 음에 ‘조선’이라는 두 개의 음절이 들어갔는데, 이는 당김음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만약 음절과 음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 ♩ (4분음표)를 ♩ ♩ (8분음표)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하였다면 당김음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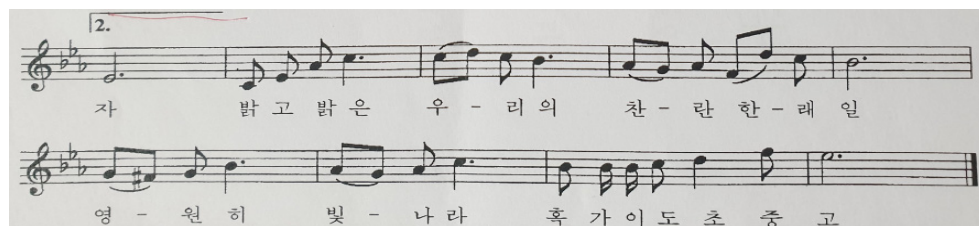
〈악보 1〉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



또한 붙임줄의 사용으로 당김음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당김음을 사용한 학교의 교가는 총 6개이고 모두 ♩ ♩의 형태이다.

또 다른 다양한 리듬꼴의 사용에는 ♩ (16분음표)의 연속사용이 있는데, 총 14개의 교가 중 2개의 교가에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흑가이도초중고 교가에서는 곡의 마지막 소절 가사인 교명 ‘흑가이도초중고’의 ‘가이’ 부분에 ♩ ♩ (16분음표)를 연속 사용하여 교명을 강조하였다.

〈악보 2〉 흑가이도초중고 교가



또 다른 예로, 조선대학교의 교가에서는 후렴 시작 부분의 4마디에 ♩ (16분음표)의 연속사용으로 곡의 긴박감과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 부분의 앞·뒤로는 주로 ㄱ (4분음표)와 ㄱ ♩의 부점형태가 주된 리듬꼴의 골격을 이루며 힘찬 기상을 나타내고 있어 후렴 시작 부분의 리듬꼴 변형을 더욱 부각시킨다.

〈악보 3〉 조선대학교 교가

백 두령 봉 기상—인양 무 사 시 노 굶어보—며

조 국 영 예 자 랑 하 듯 그 이 름 도 조 선 대—학

(후렴) *mp* 젊 은 가 스 회 망 품 고 교 정 안 을 들 어 서 니 조 국 사 랑 념 쳐 풍 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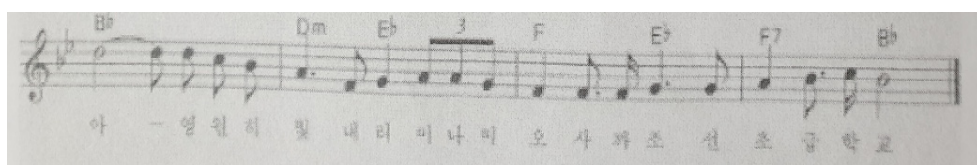
따 사 로 이 안 아 주 네 무 쇠 팔 뚝 — 두 다 리 에

불 을 뿜 듯 용 기 솟 — 고 우 리 심 장

붉 은 심 장 불 덩 이 로 타 — 오르 네

또 다른 다양한 리듬꼴의 사용으로 셋잇단음표를 들 수 있는데, 총 14개의 교가 중 1개의 교가에서 셋잇단음표를 사용하였다. ‘셋잇단음표’는 비정형 리듬으로, 일반적으로 기본박이 2등분 되어 ㄴ (4분음표) 1박이 ㄴ ㄴ (8분음표) 두 개로 분할되고, 이는 또 다시 ㄴ ㄴ ㄴ ㄴ (16분음표) 네 개로 분할되는 것에 반해 셋잇단음표는 ㄴ (4분음표) 1박이 ㄴ ㄴ ㄴ (8분음표) 세 개로 3등분 되어 한 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미나미오사까(南大阪)조선초급학교 교가에서는 마지막 소절 교명인 ‘미나미’에 셋잇단음표를 사용함으로 리듬과 음절의 개수를 맞추고 동시에 교명을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악보 4〉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교가



〈표 1〉 리듬꼴 분석

리듬꼴	교가수	학교명
부점리듬	11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도순조선초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토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민음표 중심	3	흑가이도초중고,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당김음 사용	10	강박과 약박 위치 바꾼 당김음: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도순조선초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붙임줄을 사용한 당김음: 교토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ㄴ (16분음표) 연속 사용	2	흑가이도초중고, 조선대학교
셋잇단음표 사용	1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3) 갯춘마디 · 못갯춘마디

‘갯춘마디’는 박자표에서 나타낸 박의 수가 마디 안에 온전히 들어있는 마디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는 뜻으로, 셈여림을 강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센내기’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못갯춘마디’는 첫 음이 시작되는 마디에 박자표에서 나타낸 박의 수를 갖추지 못하여 마지막 마디 박자와 합쳤을 때 박자표에서 제시한 박자가 되는 것이다. 못갯춘마디는 셈여림을 약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린내기’라고도 한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곡 중 13곡이 갯춘마디로 시작하였고, 1곡만이 못갯춘마디로 시작하였다. 갯춘마디로 시작한 13곡 중 8곡은 중간에 여린내기로 변하여 센내기와 여린내기의 혼합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대부분 조선학교의 교가들에서 갯춘마디를 사용한 것은 센박으로 시작하여 힘찬 느낌을 주어 가사의 전달력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교가에 더 잘 어울리는 것이 갯춘마디인지, 못갯춘마디인지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가사의 내용과 어울리고 적합한지가 그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 일본 조선학교의 교가들은 갯춘마디의 형태가 가사와 더 잘 어울리는 적합성을 가졌다. 못갯춘마디로 시작할 경우, 가사의 의미는 강한데 비해 여린내기로 시작하여 교가를 부를 때 가사가 가지고 있는 전달력을 흐리게 하고 가사의 운율 역시 매끄럽지 않게 하는 경향이 있다. 못갯춘마디를 사용한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의 첫 마디를 살펴보면, ‘영광찬 조국 땅에 평화 소리 드높아’의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린내기의 셈여림으로 이 노래를 부른다면 ‘영 광찬 조국땅에평화 소리드 높 아’로 들린다.

〈표 2〉 갯춘마디 · 못갯춘마디 분석

갯춘마디 · 못갯춘마디 형태		교가수	학교명
갯춘마디	갯춘마디를 끝까지 유지한 형태	5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흑가이도초중고, 세이방조선 초중급학교, 조선대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갯춘마디로 시작하나 여린내기 혼합사용	8	도순조선초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토조선중고 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오사까조선제4초 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 초급학교,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못갯춘마디		1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4) 시작 리듬

악곡을 시작할 때 첫 마디에 가장 많이 사용한 리듬은 ♩ ♩ ♩ 로, 총 14곡의 일본 조선학교 교가 중 5개의 교가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따은따 판판’의 부점리듬으로 교가의 첫 구절을 시작하여 씩씩한 느낌과 기상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리듬꼴은 많이 어렵지 않고 부점리듬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가장 기본적인 리듬이기도 하다. ♩ ♩ ♩ 리듬 외에도 ♩ ♩ 나 ♩ ♩ ♩ 또는 ♩ ♩ ♩의 사용으로 3개의 학교가 첫 박에서 ♩ ♩의 부점리듬으로 시작하였고 1개의 학교에서 못갓춘마디로 시작하는 첫 박에 ♩ ♩의 부점리듬을 사용하여, 14개의 학교 중 부점리듬으로 교가를 시작한 일본 조선학교는 총 9개였다. 나머지 5개 조선학교의 교가는 민음표로 악곡을 시작하였다.

〈표 3〉 악곡의 시작 리듬 분석

시작 리듬		교가수	학교명
♩ ♩ ♩		5	도순조선초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토조선중고급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그 외 부점리듬	♩ ♩	1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 ♩ ♩ ♩	1	조선대학교
	♩ ♩ ♩ ♩	1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 ♩	1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민음표로 시작	♩	2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	2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	1	후가이도초중고

2. 선율 분석

‘선율’은 음의 높고 낮은 각기 다른 소리의 음들이 수평적으로 나열되어 선의 형태를 이루며 연속적으로 조화롭게 울리는 것을 말한다. 선율은 순차적이든지 도약적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방향성을 띠고 진행하면서 ‘음계’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다시 세부적으로 ‘음계’, ‘음역’, ‘전주사용 여부’로 분류된다.

1) 음계

사전적 의미의 음계란 ‘음악에 쓰이는 음을 높이의 차례대로 배열한 음의 총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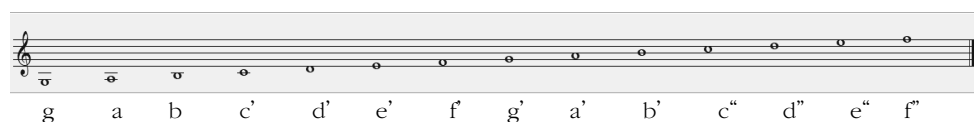
이는 한 옥타브 안에서 정렬된 음의 구성이 5개이면 '5음 음계', 7개이면 '7음 음계', 12개이면 '12음 음계'가 된다. '5음 음계'는 일반적으로 동양 음계라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5음 음계는 '솔·라·도·레·미' 음을 사용한다. 이러한 5음음계의 사용은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적인 느낌을 준다. 반면 일본의 5음 음계는 '미·파·라·시·도' 음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음계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는 우리나라의 5음 음계도 사용하지 않았고, 일본의 5음 음계도 사용하지 않아 동양적이거나 민속적인 느낌은 없었다. 모든 일본 조선학교 교가들은 모두 7음 음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 중에서도 서양의 문화와 교육이 들어감으로 음악의 요소들 또한 서양음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음 음계'란 5음 음계의 음정 간격이 넓은 부분에 음을 넣어 7음으로 만든 것으로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한 옥타브 안의 구성음인 '도·레·미·파·솔·라·시'를 말한다. 이는 우리가 현재 즐겨 듣고 있는 대부분 음악의 기초가 되며, 조성 음악의 모체가 되는 온음계의 한 형태이다 (김유희 2010, 26).

2) 음역

일본 조선학교 교가에서 '음역'은 한 노래에서의 가장 높은 음과 가장 낮은 음까지의 넓이를 나타낸다. '가온 다'음을 c'로 기준으로 하여 한 옥타브 위는 c'', 한 옥타브 아래는 c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은 음이름 표가 형성된다.

〈악보 5〉 음계의 음이름표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에서는 최저음이 Bb, 최고음이 D'' 음역인 교가가 총 3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저음 C', 최고음 D'' 음역의 교가 2개, 최저음 C', 최고음 E'' 음역의 교가 2개, 최저음 C', 최고음 F'' 음역의 교가 2개가 그 다음 비중을 차지했고, 이 밖에도 최저음 Bb, 최고음 F'' 음역, 최저음 Bb, 최고음 D'' 음역, 최저음 A, 최고음 D'' 음역, 최저음 A, 최고음 E'' 음역, 최저음 D', 최고음 E'' 음역이 각 1개씩 있었다.

〈표 4〉 음역대 분석

음역	교가수	학교명
Bb-D"	3	아이피조선중고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C'-D"	2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C'-E"	2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C'-F"	2	고베조선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Bb-F"	1	후카이도초중고
B-D"	1	나고야조선초급학교
A-D"	1	도순조선초급학교
A-E"	1	교토조선중고급학교
D'-E"	1	조선대학교

최저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교가의 음은 C'음으로 총 6개였고, Bb음도 4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A음이 2개, B음이 1개, D음이 1개였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작곡가들은 최저음으로 C'음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이는 학생들이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음역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B음과 Bb음도 노래 부르기에 크게 무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져 5개 교가가 이 음역대를 사용하였다. 음역은 성별과 나이차이에 따라 낼 수 있는 영역이 틀려지며 초등학생의 경우 C'-C" 정도의 한 옥타브 음역이 적당하다. 그런데 일본 조선학교 교가 중 A음을 최저음으로 사용한 교가가 2개 있었으며, 그 중 한 학교는 초급학교였다. 이는 초등학생에게 어울리지 않는 음역이라 생각된다. 이 밖에도 D'음을 최저음으로 사용한 교가도 1개 있었다.

〈표 5〉 교가의 최저음 분석

최저음	교가수	학교명
C'	6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Bb	4	후카이도초중고, 아이피조선중고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A	2	도순조선초급학교, 교토조선중고급학교
B	1	나고야조선초급학교
D'	1	조선대학교

최고음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D"음이 최고음인 교가가 총 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E"음이 4개, F"음이 3개였다. 최고음 D"음은 모든 학생이 부담 없이 소리내기에 적합한 음으로 여겨지나, E"음은 변성기 학생들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은 감이 있는 음역대이고, F"음은 아동이 부르기에 무리가 있는 곡이라 생각된다. 최고음 F"음을 사용한 조선학교 교가는 혹가이도 초중고, 고베(神戸)조선고급학교, 히로시마(廣島)조선중고급학교로 총 3개의 교가였는데 이 중 혹가이도초중고는 초등학생도 같이 부르는 교가이기 때문에 더욱 최고음 F"음이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표 6〉 교가의 최고음 분석

최고음	교가수	학교명
D"	7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도순조선초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E"	4	교토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F"	3	혹가이도초중고, 고베조선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교가는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초·중·고등·대학생인지에 따라 교가 작곡할 때 음역 선택을 잘 해주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변성기를 거치면서 성대의 변화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최저음 C', 최고음 D"의 음역이 가장 노래 부르기에 편하고 좋으며, 최저음 Bb, 최고음 E"정도까지도 큰 무리가 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3) 전주 사용

‘전주’는 음악이 시작되는 부분에 노래 없이 반주만 나오는 것으로, 그 곡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즉,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마음을 가다듬고 노래 부를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또한 듣는 사람에게도 앞으로 나올 노래가 어떠한 느낌의 노래인지에 대해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보통 전주는 노래 전체를 함축한 내용이 들어있어 전주만 들어보아도 그 노래에 대해 느낌이나 템포, 리듬 등을 알 수 있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에서는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교가에서만 8마디의 전주를 사용하였다. 곡 전체의 느낌을 알 수 있도록 ♩, ♪의 부점음표와 ♩(16분음표)의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씩씩하고 당당한 표현을 하였다. 특히 마지막 두 마디 전주는 노래의 끝부분 두 마디 멜로디와 동일하게 허용하여 통일성과 일치감을 주었다.

〈표 7〉 전주사용 분석

전주사용여부		교가수	학교명
미사용		12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흑가이도초중고, 도순조선초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토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사용	8마디전주사용	1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4마디십표사용	1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에서는 전주가 기보 되지는 않았지만 노래가 시작되기 전 4마디를 십표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반주자가 즉흥적으로 네 마디에 전주를 붙여넣어 연주하라는 뜻이라 생각된다. 보통 전주가 기보 되지 않은 경우 맨 끝의 네 마디를 전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을 감안할 때 네 마디의 전주는 마지막 네 마디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3. 화성 분석

음악구조는 ‘선법조직의 음악’과 ‘조성조직의 음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법조직의 음악’은 고대에서 중세와 근세에 걸쳐 음악의 짜임새를 지배하여 온 선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조성조직의 음악’은 주로 장조와 단조의 화성적 양식에 의한 음악을 말한다(윤양석 1986, 161). 선법조직의 음악은 다시 하나의 멜로디로 구성되는 단성 음악과 여러 선율로 구성되는 다성 음악으로 분류한다. 이에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를 세부적으로 ‘조성’, ‘성부 조직’, ‘중지 형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성

‘조성’이라 함은 말 그대로 ‘조 이름’을 말하며, 어떠한 ‘조’의 으뜸음과 음계의 종류인 장음계나 단음계를 같이 붙여서 부른다. 예를 들어 C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장음계는 C장조라 일컬으며, C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단음계는 c단조라 일컫게 된다. 조 이름을 적을 때는 ‘장조’ 대신에 영어로 ‘Major’, ‘단조’ 대신에 ‘minor’를 사용하기도 한다. ‘Major 음계’(장음계)는 으뜸음을 기준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첫 음인 ‘도’를 1번으로 시작하여 8번까지 번호 매길 수 있다. 이때 3·4번과 7·8번 음의 간격이 반음이고 나머지 음의 간격은 모두 온음인 형태를 ‘장조’라 하고, 대체로 밝고 희망적이며 경쾌한 성격을 만든다. 반면에 ‘minor 음계’(단음계)는 똑같이 으뜸음을 기준으로 ‘라·시·도·레·미·파·솔·라’를 순차적으로 나열했을 때 2·3번과 5·6번 음의 간격이 반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단조’라 하고, 대체로 어둡고 고요하며 조용한 느낌을 준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는 모두 장조를 사용하였는데, 그중 12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장조의 조성을 유지하였다.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는 Bb장조에서 Eb장조로 변조했다가 다시 Bb장조로 돌아오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고베조선고급학교 교가는 처음에 F Major로 시작했으나 중간에 d minor의 단조 화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 14개 교가의 조성을 분류해보자면 C Major와 Bb Major가 각각 4개씩으로 가장 많았고, F Major와 D Major가 2개씩, G Major와 Eb Major는 1개씩으로 나타났다.¹⁵⁾

이렇듯 일본 조선학교 교가들은 씩씩하고 위상을 나타내는 특성상 밝은 느낌의 장조를 선호하여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4개의 조선학교 가운데 초급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가는 9개인데 이들 중 4개의 조선학교에서 C Major의 교가를 사용하였고, 다른 4개 학교 교가는 조표가 b(플랫:내림표) 하나 붙은 F Major, 두 개 붙은 Bb Major, 또는 #(샹:올림표)이 두 개 붙은 D Major를 사용하여 초급학교에서 노래하거나 반주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하여 조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혹가이도초중고 교가에서는 b(플랫)3개의 Eb Major를 사용하여 초급학생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초·중·고급 학교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교가이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15) 단,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는 Bb Major가 주를 이루므로 Bb Major로 분류하였다.

〈표 8〉 조성 분석

조성		교가수	학교명
모두 장조 사용	처음-끝까지 계속 장조	12	도쿄조선제2초급학교(F), 홋카이도초중고(Eb), 도순조선초급학교(D),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C), 교토조선중고급학교(D),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Bb), 조선대학교(G), 나고야조선초급학교(C), 오사카조선제4초급학교(C),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C), 미나미오사카조선초급학교(Bb), 도쿄조선제9초급학교(Bb)
	중간에 단조 화음 사용	1	고베조선고급학교(F)
	변조 사용	1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Bb-Eb-Bb)

2) 성부 조직

성악의 연주형태 중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독창’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이 같은 가락을 동시에 노래하는 것을 ‘제창’이라고 한다. 두 성부 이상의 서로 다른 성부를 나누어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것은 ‘합창’이라고 하는데, 2성부의 합창은 ‘2부 합창’, 3성부의 합창은 ‘3부 합창’, 4성부의 합창은 ‘4부 합창’이라 부른다. 그러나 제창의 형식에서 노래 일부분만 합창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부분 합창’이 될 것이고, 합창 부분이 2부로 구성되었다면 ‘부분 2부 합창’이 될 것이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 중 13개는 제창의 형식으로 되어있고,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교가만 유일하게 부분 2부 합창으로 되어있었다. ‘제창’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큰 소리로 동시에 노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힘차고 씩씩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조선학교 교가에서는 제창의 형식을 선호하여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화음이 곁들여지면 음악적으로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지만 행진곡이나 응원가의 성격을 가진 교가에서는 단일선율의 제창 형태로 불렀을 때 더욱 공동체적 결속력을 느낄 수 있다.

〈표 9〉 성부조직 분석

성부조직	교가수	학교명
제창	13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홋카이도초중고,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도순조선초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토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오사카조선제4초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미나미오사카조선초급학교,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부분2부합창	1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3) 종지

‘종지’란 악곡이 끝날 때, 혹은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곡을 일시적으로 쉬게 하는 역할을 한다. 곡이 끝날 때 사용하는 종지는 ‘닫힌 종지’라고도 하며 곡이 완전히 끝나는 종결감을 준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쉬게 하는 종지는 ‘열린 종지’라고도 하며 보통 IV(4도)-V(5도)의 진행을 일컫는다. 그 중 ‘정격종지’는 V(V7)도-I도로의 진행을 말하며, 조성음악에서 가장 완전한 종지로 사용된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는 모두 ‘정격종지’를 사용하여 곡이 완전하게 끝나는 종결감을 확실하게 주었다.

〈표 10〉 종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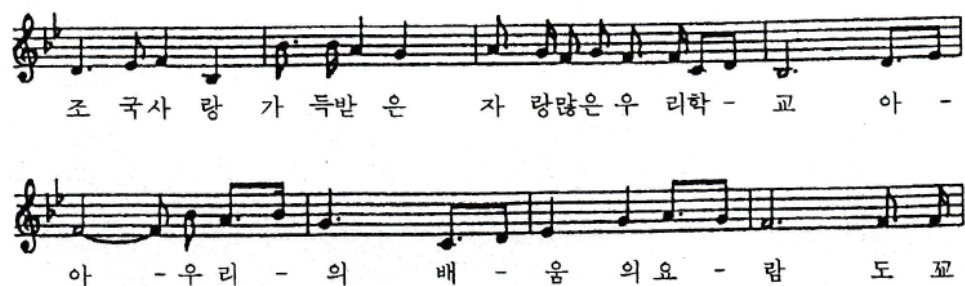
종지 유형	교가수	학교명
정격 종지	14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홋카이도초중고,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도순조선초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토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오사카조선제4초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미나미오사카조선초급학교,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IV.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특징

지금까지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의 음악적 특징을 음악의 3대 요소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음악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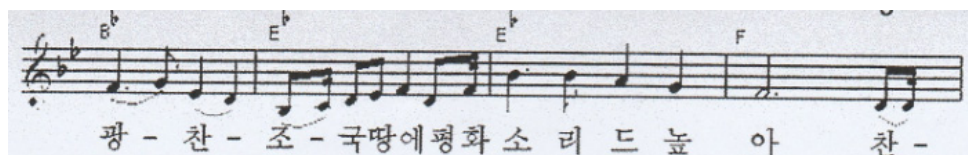
첫째, 악보의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주 나타난 악보 오류는 음표의 종류를 박자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와 가사에 ‘.’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도쿄(東京)조선제9급학교 교가의 경우로 둘째 단 둘째 마디에 ♩(2분음표) 대신에 ♪(4분음표)가 사용되었고, 셋째 단 둘째 마디에는 ♩(점2분음표) 대신에 ♪(점4분음표)가, 셋째 단 셋째 마디에는 ♩(2분음표) 대신에 ♪(4분음표)가 사용되었는데 이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아래는 도쿄조선제9급학교 교가이다.

〈악보 6〉 도교조선제9급학교 교가



후자의 경우는 가사의 음절 수와 음표가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로, ‘ ’의 사용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음표의 수보다 가사의 음절 수가 적을 때 ‘ ’를 사용하여 어느 음까지 그 음절의 가사를 부를 것인지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사의 표기에 있어서 보통은 멜로디 선을 밑에 1절·2절·3절 순으로 정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 중 11개는 멜로디 선을 밑에 1절의 가사만 표기하고 나머지 절의 가사들은 악보의 우측이나 하단에 따로 글자로만 표기하여 1절 가사는 음절 수와 음표 수가 ‘표시 사용으로 명확히 표기된 데 반해, 글자로만 표기된 가사에서는 ‘표기가 전혀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1절 가사의 음절 수와 다른 절의 가사 음절 수가 같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음표의 수가 4개이고 가사 음절의 수도 4글자인 경우 1절은 한 음당 한 글자씩 맞춰서 부르면 되는데 2절에서 3음절의 가사로 바뀌면 어느 음절을 2개의 음표로 끌어서 불러야 하는지 불명확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래의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이다.

〈악보 7〉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



나머지 3개의 학교 중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교가는 1절 한 절의 구성으로 해당 사항이 없었고, 나고야조선초급학교와 미나미오사카조선초급학교의 교가는 멜로디 밑에 각각 2절과 3절의 가사를 적어놓았다.

둘째, 교가에 전반적으로 부점리듬이나 당김음 등을 사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가사를 명확하게 하였다. ‘통일조선’, ‘수령님’, ‘영광찬 조국’, ‘원썬들과 싸워 이긴’, ‘수령님의 아들 딸된’, ‘붉은’, ‘휘황차게’, ‘사회주의 조국’, ‘끓는 피’, ‘조국 영예’, ‘무쇠’, ‘붉은 심장’, ‘함흥색 깃발’, ‘애국열사’ 등과 같은 가사에서 이 단어들을 강하게 살리기 위해 부점리듬이나 당김음 등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어떠한 경우에는 가사의 음절이 한 개의 음절이라 J (4분음표)를 사용하면 되었지만 ♩, ♪의 부점리듬을 붙임줄로 묶어서 표기하였다. 음표의 소리 나는 길이는 두 가지가 동일하나 표기 방법적인 면에서 부점리듬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숨표나 쉼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숨표를 따로 표기하지 않은 조선학교 교가는 14개 중 12개였다. 대다수 조선학교 교가가 숨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교가 작곡가들이 숨표 표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토(京都)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2개의 교가만이 숨표 표시를 하였다. 이에 일본의 조선학교 교가들은 숨을 쉬는 곳을 명확하게 표기해주는 관심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쉼표를 사용하지 않은 조선학교의 교가는 14개 중 12개이다. 그 예로 흑가이도초중고 교가를 보면 노래가 음표와 쉼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하고 음표로만 파악 있어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다. 쉼표를 사용한 조선학교의 교가는 2개이며 도춘(東春)조선초급학교의 교가가 대표적이다. 이 교가에서는 쉼표를 적절히 사용하여 보기도 좋고 따로 숨표의 표기가 없더라도 쉼표가 있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일본 조선학교 교가들은 장조를 사용하였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 모두가 장조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씩씩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학교의 위상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밝은 느낌을 표현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다섯째, 빠르기말 대신 부사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교가의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빠르기의 규정은 메트로놈 박으로 제시될 수도 있고 빠르기말(Allegro, Moderato, Andante 등)이나 부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조선학교 7개 교가에서는 빠르기말 대신 각각 ‘자랑차게’, ‘행진곡으로’, ‘씩씩하게’, ‘행진조로’, ‘행진곡조로’, ‘따뜻하게’, ‘궁지와 자랑안고 당당히’ 등을 사용하여 모두 힘차고 씩씩한 행진곡조로 당당하게 부를 것을 요구하였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조선학교는 북한의 지원을 받는 조총련계 학교라는 사실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일본 정부가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자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시위에 나서는 모습을 한국 언론이 보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대부분이 일본 정부의 차별과 일본 사회의 편견을 받아온 불쌍한 한민족학교라고 피상적으로만 바라보았다. 이로 인해 해방 후 조선학교가 걸어온 일본 내 민족교육의 다양한 많은 모습은 물론 조선학교의 어느 하나 정보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다.

일본의 조선학교는 1945년 패망한 일본에서 1세대 재일동포들이 후세들의 민족교육을 위해 세워진 국어강습소를 계승한 해외 한민족학교이다. 이 조선학교는 한때 일본 여러 지역에서 수백 개의 학교가 운영되었지만 급격하게 줄어들어 지금은 60여 개만이 힘겹게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조선학교는 민족교육을 하여 일본에 사는 후세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우리의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본 논문은 해외 한민족학교인 일본 조선학교의 교가를 대상으로 음악적 요소 등의 분석을 통해 그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먼저 음악적 요소 분석을 보면, 리듬 측면에서 교가의 박자는 4/4박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리듬꼴의 유형에서는 부점리듬을 중점적으로 사용한 교가의 수가 민음표를 중심으로 사용한 교가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교가에 어울리는 씩씩하고 당당한 느낌을 주기 위함이라 판단되었다. 갓춘마디와 못갓춘마디의 분류에서는 갓춘마디로 시작하여 중간에 여린내기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형태가 8개 교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작하는 리듬은 ♩ ♩ ♩ 로, 총 14곡의 일본 조선학교 교가 중 5개의 교가에서 사용되었다. 선율적인 면에서 음계는 14개의 교가가 모두 '7음 음계'를 사용하였고, 음역대의 사용은 Bb-E"사이의 음역대를 선호하였다. 전주를 사용한 학교는 1개 학교로 학교 대부분이 전주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성적 면에서 조성은 12개 학교 교가가 장조를 사용하였고, 성부 조직은 제창의 형태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종지의 형태는 14개 모두 정격종지를 사용하였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악보의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주 나타난 악보 오류는 음표의 종류를 박자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와

가사에 ‘.’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둘째, 교가에 전반적으로 부점리듬이나 당김음 등을 사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가사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숨표나 쉼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넷째, 일본 조선학교 교가들은 장조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빠르기말 대신 부사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교가의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관한 연구이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학교 교가에 관한 연구는 국내 학교 교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 교가의 가사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나타난 음악적 요소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한민족학교의 음악적 내용이나 그 특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민족학교 교가의 음악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 현재에도 많은 재일동포가 거리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많은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조선학교의 교가 연구는 물론 다양한 ‘학교문화’의 자료 발굴과 그 연구를 통해 민족학교로써의 일본 조선학교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조명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이 바로 이웃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우리 한민족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김리화. 2015. 故郷としての朝鮮学校－朝鮮学校の音楽教育に関する一考察. 在日朝鮮人史研究 45.
- 김유희. 2010. 음악기초이론의 이해. 예술.
- 배지원·조경희 엮음. 2017.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 도서출판 선인.
- 승윤희. 2014. 서울시중학교의 교가 분석 연구. 예술교육연구 12(1).
- 안병삼. 2011.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의 망실과 그 특징. 한국민족문화 39.
- _____. 2012. 中國 黑龍江省 朝鮮族學校 校歌 研究. 인문과학연구 35.
- _____. 2013. 중국 요녕성 조선족학교 교가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3.
- _____. 2014. 中國 朝鮮族學校 校歌에 나타난 한민족공동체의식. 민족문화논총 57.
- 안병삼·임영언. 2018. 해외 한민족학교의 교가 비교 연구 - 중국 조선족학교와 일본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7(4).
- 오자와 유사쿠. 이충호 옮김. 1999.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도서출판 혜안.
- 윤양석. 1986. 음악기초론-소재와 양식. 세광음악출판사.
- 임영언·김태영. 2017. 재일코리안 민족학교의 성장요인과 학교문화로서 교가 고찰. 일본문화학보 73.
- 정진성. 2017. 재일동포 민족학교. 일본비평 16.
- 藤島宇内・小沢有作. 1966. 民族教育－日韓条約と在日朝鮮人の教育問題. 青木新書.
- 高英穀. 2002.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と在日コリアンの地位について. 東京大學社會情報研究所主催國際シンポジウム資料集.
- 출처: http://www.korean.net/portal/info/pg_knt_major_area.do (검색일: 2019.11.21.).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3064500073?input=1195m> (검색일: 2019.11.23.).
- 출처: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91649 (검색일: 2019.11.23.).

● 투고일: 2020.01.15. ● 심사일: 2020.01.17. ● 게재확정일: 2020.02.20.

Analysis of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osun School's School Songs in Japan

An Byungsam (SahmYook university)

Kim Sujin (SahmY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usical elements and others of the Chosun Schools' school songs and examine the diverse musical characteristics thereof. For this purpose, the school song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three major elements of music: rhythm, melody and harmony. Again, the rhythm was divided into beat, rhythm, complete or incomplete bar and beginning rhythm. On the other hand, the melody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scale, register, prelude or not. Lastly, the harmony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tonality, vocal part and fine.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songs of Chosun Schools in Japan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n general, they use the dotted rhythms or syncopation to clearly express the lyrics. Secondly, errors are easily found in the scores. The frequent errors are the case where the notes are not appropriately used to match the beats, and the case where the mark '-' is not indicated for the lyric. Thirdly, breathing or rest marks are not used. Fourthly, the major is used in all school songs. Fifthly, adverbs are used instead of the tempo marks to express the overall feeling of the songs. This study is deemed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to analyze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overseas Korean ethnic schools' school songs for the first time.

〈Key words〉 Japan, Chosun-School(朝鮮學校), School song(校歌), Korean residents in Japan, Music, Characteristic, rhythm, melody, harmony